

연구개발 특허기술이전 추진

국립기술품질원이 보유한 특허기술이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에 기술이전될 전망이다. 국립기술품질원이 보유한 특허기술은 현장중심의 신기술로 산업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큰 특징으로 '91년 이후 특허 14건, 특허출원 60건, 실용신안 1건 등 75건의 보유 산업재산권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에 기술교육, 기술지도, 현장훈련등의 방법으로 기술이전하여 사업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편집부>

1. 기술이전 활성화 방안

국립기술품질원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특허기술의 사업화를 위하여 국립기술품질원이 보유하고 있는 75건의 특허신기술을 이전하기로 하고 특허기술 목록을 공개하였다.

'91년 이후 특허를 획득한 기술 14건(화학분야 6건, 요업분야 8건)과 '98년 4월 현재 특허출원중인 신기술 60건(화학분야 26건, 섬유분야 2건, 기계분야 5건, 요업분야 24건, 금속분야 2건, 전자분야 1건 : 국제특허 2건 포함) 및 실용신안 기술 1건(기계분야)의 산업재산권을 공개하고 중소기업이 사업화를 원하는 경우 기술교육, 기술지도, 현장훈련 등의 방법으로 기술이전을 적극 추진하고 초정밀고난도의 시험, 분석, 평가를 위한 최신 정밀시험, 연구시설과 160여명의 우수한 연구인력(박사급 57명, 석사급 89명 포함)을 집중 투입하여 기술이전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2. 기술이전 사례 및 체계

현재 국립기술품질원이 보유한 75건의 특허 신기술중 섬유 전처리용 조제기술 등 4건은 (주)신화 등 3개 업체에 기술이전을 실시하여 특허를 상품화함으로써 수입대체(연간 84억원), 제조원가 절감(연간 8억원)의 실적을 올린 바 있으며, 앞으로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신기술의 상품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특허 기술이전사업을 적극화할 계획이다. 자원재활용기술개발센터 등 20여개의 전문 연구실을 운영하고 있는 국립기술품질원은 특허 현장중

심의 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면서 산업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큰 특징이며, 야간에 식별이 용이한 "도로 표시용 특수페인트 제조방법", 선박 차량 등이 충돌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하철 건축물 등의 진동과 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방진 및 흡진 고무 조성물 개발"과 도금공장의 유해배출 폐수를 무인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해식 폐수처리장치" 등이 대표적인 예로서 중소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중대 애로기술을 해결할 수 있는 연구개발체제를 구축하고 생산현장의 활용성을 제고하고 있다.

3. 기술이전의 체계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제공동연구, 기술혁신개발 연구, 수탁연구 및 공업기반기술개발 등 200여 과제의 연구개발은 현장중심의 애로기술 해소는 물론 산업기반기술과 요즈음 수요가 증대하고 있는 에너지, 환경 및 자원 재활용기술 등에 대한 신기술 개발로서 개발 완료후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이전을 추진하고 연구개발 신기술의 사업화 및 개발 축적된 Data Base화하여 중소기업에 수시로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체계화 한다.

<직무발명특허 현황(1991년 이후)>

특허 보유 14건, 특허출원 69건

- 화학 : 특허보유 6건, 특허출원 26건
- 섬유 : 특허출원 2건 ○기계 : 특허출원 5건
- 전자 : 특허출원 1건 ○금속 : 특허출원 2건
- 요업 : 특허출원 8건, 특허출원 24건